

7년만에 '순수 전기차' 출시... BMW iX·i4 돌풍 예고

iX 내달 출시... 사전계약 2200대
배터리 111.5kwh·76.6kwh 2종
주행거리 최대 425km까지 가능

i4, 2137대 예약... 내년 2월 출시
역동적 드라이빙 초점 실용성 갖춰

BMW코리아가 7년 만에 국내 시장에 출시한 순수전기차 BMW iX와 i4의 인기가 예상롭지 않다. BMW코리아가 순수전기차를 국내 출시한 것은 2014년 i3 이후 7년 만이다.

'뱀지코', '토끼이빨'이라는 혹평을 받던 수직형 키드니 그림을 채택한 순수전기차가 국내 사전계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iX는 오는 12월 국내에 출시되며 i4는 내년 2월 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BMW코리아는 설명했다.

23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사전 계약 기간 BMW iX는 총 2200대가량 계약이 이뤄졌다. 비슷한 크기의 BMW X5가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총 4800여대 판매된 것을 감



BMW 순수 전기 플래그십 모델 BMW iX.

안하면 상당한 사전 계약 수치가. i4는 같은 기간 2137대가 계약이 이뤄지며 흥행몰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iX는 BMW의 신기술이 집약된 순수 전기 플래그십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이다. 지난 6월 주요 사양이 공개된 iX는 BMW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신형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최초의 모델로 차체 길이와 폭은 X5, 높이는 X6, 휠사이즈는 X7과 비슷하다. 배터리는 111.5kwh 배터리와 76.6kwh 배터리 등 총 2가지로 구성,

주행거리는 최대 425km까지 가능하다. 특히 BMW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5세대 eDrive를 적용했다.

선구적인 외부 디자인, 고급스러운 면서도 여유로운 실내 공간, 스포티한 주행성능과 진보된 연결성이 결합된 특징이다. 벤츠, 아우디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있는 고급 전기 SU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BMW가 내놓은 야심작이다.

i4는 역동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순수전기차 모델이다. BM

W 고유의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4도어 그란 쿠페만의 우아한 디자인, 그리고 장거리 여정을 완벽히 지원하는 공간활용성과 실용성을 갖췄다. i4에는 BMW의 차세대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BMW eDrive 기술을 적용 최고출력 530마력을 발휘한다. 또 최신 배터리 셀 기술로 새롭게 설계된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됐다. 최신 5세대 BMW eDrive 기술과 지능적인 경량화 설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다.

BMW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순수 전기차의 흥행은 지난 2014년 선보인 i3에 대한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i3는 출시 당시 국내 시장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당시 BMW i3는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BMW는 초창기 모델의 주행거리(약 160km)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7년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8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순수전기차 i3 94Ah 모델을 출시했다. 지난 2019년에는 뉴 i3 120Ah(약 248km)를 출시 성능은 개선했지만 가격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출시했다. 또 인테리어 소재를 재활용 소재들을 대거 적용해 친환경차 콘셉트에 맞추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BMW코리아가 i3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순수친환경차가 국내 시장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격(개별소비세 적용)은 iX xDrive e40i 1억 2260만원, iX xDrive50i 1억 4630만원이다. BMW코리아는 iX 구매자에게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BMW 밴티지 앱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BMW 코인도 준다.

iX3는 BMW 샵 온라인을 통해 M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7590만원이다. BMW 코리아는 올해 안에 iX3 구매하는 고객에게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미디어 터널서 경주 세계유산 감상해요”

LG전자,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터널
너비 3.2m, 높이 2.9m, 길이 10m

LG전자가 차원이 다른 올레드 사이니지를 통해 세계유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한다.

LG전자는 경주엑스포대공원내 새롭게 개관한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인 '살롱 헤리티지(Salon Heritage)'에 다양한 형태의 올레드 사이니지(전자 광고판)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곡면 형태의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로 '미디어 터널'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 터널은 너비 3.2m, 높이 2.9m, 길이 10m 규모로, 제작에 55형(대각선 길이 약 140cm) 플렉서블 올레드 72장이 사용됐다.

관객들은 미디어 터널을 통해 레드 구원한 완벽한 블랙과 자연에 가까운 색감 등을 통해 세계유산의 탄생과정을 담은 미디어아트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LG전자가 경주 소재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인 '살롱 헤리티지(Salon Heritage)'에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LED 사이니지 등을 설치했다. 모델들이 55형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72장으로 조성한 10m 길이 올레드 터널에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있다.

지정된 남산의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체험존에는 LG전자 55형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가 설치됐다.

투명한 화면 너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주요 세계유산에 관련된 퀴즈를 터치하면 퀴즈의 정답과 함께 해당 유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시장 내 조성된 휴식 공

간에 가로 9.6m, 세로 2.7m 규모로 구현한 실내용 LED 사이니지에서는 다양한 경주의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배석형 LG전자 BS마케팅실장은 “올레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고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프, 프리미엄 대형 SUV 공식 출시

3월 탑재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

국내 대표 아메리칸 프리미엄 캐주얼 지프가 브랜드 최초로 3월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선보인다.

지프는 2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아트리움에서 프리미엄 대형 SUV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공개한 모델로 지난 30년간 4세대에 걸쳐 진화를 거듭하며 700개 이상의 최다 어워드

수상 경력 보유, 전세계적으로 약 700만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지프의 프리미엄 SUV다.

11년 만에 완벽한 진화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의 외관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그랜드 왜고니어의 디자인을 계승했다. 지프를 상징하는 세븐-슬롯 그릴 디자인은 양 옆으로 넓어졌고, 사선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는 듯한 '샤크 노즈'를 형상화 한 전면부 디자인이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선사한다. 지프 고유의 사다리꼴 휠 아치와 3열로 길어



지프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프리미엄 대형 SUV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진 휠 베이스의 균형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은 오버랜드와 씨티 리저브 등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7980만원, 89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인터, 친환경차 사업 '속도전'

美 리비안과 맞손... 전기차부품 수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손잡고 친환경차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이레AMS와 함께 미국 리비안으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리비안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이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시장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주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하는 물량은 전기차 약 34만대

분량의 하프샤프트로 약 1450억원 규모다.

지난해 8월 리비안과 최초 계약한 2만대 분량 포함, 총 약 36만대 차량분의 하프샤프트를 세부 조정과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중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프샤프트(Halfshaft)는 배터리전기차(BEV) 차량에서 구동축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며, 구동축은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감속기를 거쳐 양쪽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레AMS는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사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사는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영화 속 '스파이더맨', 아이오닉5 탄다

내달 15일 전세계적 영화 개봉
현대차, 액션신에 투싼도 등장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투싼이 오는 12월 15일 전세계 개봉을 앞둔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spider-man: no way home)'에 등장한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히어로 드라마를 통해 자사 차량을 출연시키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지난 2018년에는 현대차와 마블이 동공협업을 통해 마블 캐릭터를 적용한 전 세계 최초의 양산 모델인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주요 장면에서 아이오닉5와 투싼이 영화 속 주요 장면에서 등장, 다양한 차량 액션신을 선보인다. 아이오닉5와 투싼은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그룹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